

청년 교육 강화를 통한 공동체 역량강화

- 알프스 남서부의 무형유산 사례를 통하여 -

알레시오 레, 지올리아 아반자

산타가타문화경제재단

알프스 서부의 무형유산 : 배경 및 과제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국가로 인구는 약 6,000만 명이다. 2019년 기준 인구 5,000명 미만 소도시가 전체 도시 중 69.5%를 차지하며, 소도시 전체 인구는 1,000만 명인데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16.5%에 불과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소도시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이 점차 파악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로 기본 공공 서비스와 상업 활동의 부족, 인구 감소와 노령화, 기후변화 대응 마련의 시급성, 방치된 건물의 폐허화 등이 있다. 물리적 접근성이 제한되고 정보기술 인프라 지원이 부족한 산악 지대 소도시들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14년 이와 같은 시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탈리아의 경제발전추진기관인 지역통합청에서 국가내륙전략을¹⁾ 실시하여 극 변방 지역의 최대 난제인 인구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했다. 해당 지역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중요한 환경·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인구 감소를 겪는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알프스 남서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피에몬테주는 1,181개에 달하는 가장 많은 소도시가 있고 피에몬테주 전체 면적의 88.5%를 차지한다. 피에몬테주 내륙변방 지역 450개 소도시에 주민 51만 명이 거주 중인데, 이 소도시들은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한 알프스 산악 지대에 있다. 20세기 동안 이 알프스 지역의 인구 감소 경향이 가장 도드라진다는 사실이 바칭(Baetzing)의²⁾ 연구에서 최초로 밝혀졌고, 최근에는 바르탈레티(Bartaletti)의³⁾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쿠네오 지방의 알프스 소도시에서는 1901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유출로 인구의 21%가 감소했고, 보건, 교육, 대중교통 등 기본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극 변방 소도시

1) 지역통합청 국가내륙전략(2013). 이탈리아 도시의 약 53%를 차지하는 내륙 지역에 이탈리아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354만 명이 거주하며 국토의 60%를 넘는 면적을 차지한다.

2) BÄTZING W., Le Alpi. Una regione unica al centro dell'Europa, Bollati Boringhieri, Torino 2005

3) BARTALETTI F., Le Alpi. Geografia e cultura di una regione nel cuore dell'Europa, FrancoAngeli, Milano 2011

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무려 인구의 40%가 감소했다.⁴⁾

2014년 코티엔느 산맥의 최고봉으로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자 피라미드 형태로 유명한 몽비소 일대 알프스 남서부 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네트워크(이하 ‘MAB 네트워크’)의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가 되었다. 40만 헥타르에 이르는 108개 도시가 포함되며 그중 87개가 이탈리아, 21개가 프랑스 도시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있어 가능했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체계화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더불어 문화와 자연 자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간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줄여서 기후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지구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대형 산사태 발생 위험으로 몽비소의 존립이 위태롭고⁵⁾ 이와 관련된 생태계와 생계 활동도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 COVID-19 사태로 빚어진 상황은 내륙 산악 지대의 삶과 관련된 위험성과 가능성 모두를 잘 보여준다. 2020년 3~4월의 가혹한 봉쇄 기간에 환경과 공동체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맞춰지면서 양질의 삶이 제공됐지만, 당시 제한조치로 기존에 지역이 겪고 있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디지털 인프라는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기에 열악했고, 쇼핑과 서비스 시설이 저지대 계곡 대형 센터에 집중돼 있어서 산악 지대 경제의 사막화 상황이 드러났으며, 관광객 부재로 지역 수입은 현저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기록된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널리 나타나는 요소는 지역 발전과 다양한 무형유산 사이의 연관성이다.

옥시타니아 계곡 : 문화유산의 신세대로의 전승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지대의 알프스 남서부는 대부분 지역이 옥시타니아 계곡으로 이곳에는 옥시타니아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거주한다. 이 지역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주민과 산악 생태계 사이에 나타난 독특한 형태의 관계와 서로 점진적으로 적응한 결과, 음악, 무용, 공예, 사회 관습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무형유산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한편에서는 더 이상 세대 간에 전승되지 않는 무형유산도 있고, 장인이 보유한 여러 관습도 사라지고 있다. 양털과

4)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Inner Areas, Region of Piedmont, 2018

5) Regional Agen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f Piedmont; “Landslide of the Northeast side of Monviso” 3rd of July 2020. Press release available at:

<http://www.arpa.piemonte.it/news/crollo-dalla-parete-nordest-del-monviso-rilievo-digiugno>

Last check: 02/10/2020

마 방직, 전통의상 제작 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그러하다. 20세기 후반부터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된 소중한 물건과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역사적인 집단기억으로 공동체 박물관에서 전시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라이타 계곡 키아날레 마을의 의상 직물 공예박물관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를 받는 무형유산도 있다. 이 지역에서 시작되어 널리 시행되는 트랑쥐망스 전통 이동 방목은 201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⁶⁾ 알프스 등산도⁷⁾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는데, 이를 통해 몽비소는 알프스산맥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산으로 알려졌다. 전통 음식도 상세히 기록되어 왔는데, 관련 정보는 여러 지역이 참여한 프로젝트 ‘유럽 몽비소 옥시타니아 계곡(MOVE)’에서⁸⁾ 미식학 대학교가 제작한 ‘몽비소 지역과 옥시타니아 계곡의 음식 지도책’이나,⁹⁾ 알프스 전통 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을 위해 알프푸드웨이(AlpFoodWay)가 제작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프푸드웨이는 여러 지역이 참여하는 알파인 스페이스(Alpine Space) 프로그램에서 시행한 초국경 프로젝트이다¹⁰⁾.

고유한 특징을 지닌 옥시타니아 문화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여러 도전에 직면했는데, 특히 인구 감소와 세계화 확대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했다. 멸종 위기 언어 목록에 등재된 옥시타니아어는 현재 이탈리아 계곡 지대에서 겨우 2만여 명이 사용하지만,¹¹⁾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독특한 옥시타니아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6년부터 개최된 옥시타모 축제(Occit’amo Festival)에서는¹²⁾ 중세 후반 음유시인 트루바두르(troubadour)가 탄생한 옥시타니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음악을 경험할 수 있다. 옥시타모 축제가 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매년 즐겨 찾는 연례행사이자, 기존 예술가와 신진 예술가가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옥시타모 축제는 특히 음악과 문화를 통해 신세대에게 소속감을 전승하고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차 확인하는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계곡 지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에스파시 옥시탄(Espaci Occitan) 협회가 개발한 ‘페아멘트(Fai a ment): 옥시타니아 문화교육’ 프로그램도¹³⁾ 유

6) Transhumance page on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list:

<https://ich.unesco.org/en/RL/transhumance-the-seasonal-droving-of-livestock-along-migratory-routes-in-themediterranean-and-in-the-alps-01470>

Last check: 02/10/2020

7) Alpinism page on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list: <https://ich.unesco.org/en/RL/alpinism-01471>

Last check: 02/10/2020

8) See the project webpage <https://www.visitmove.it>

9) Atlante dei sapori delle terre del Monviso e valli occitane / a cura di Paolo Olivero. Savigliano: Artistica, 2017

10) See the inventory on the project webpage <https://www.alpfoodway.eu/>

11) REGIS, R. Su pianificazione, standardizzazione, polinomia: due esempi. 2012.

12) See the Occit’amo Festival webpage <https://www.occitamo.it>

13) See the association dedicated webpage:

익하다. 이 프로그램은 옥시타니아어와 문화유산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학생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워크숍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학, 음악, 전설, 전통 직업, 건축양식에 관한 지식을 전파한다.

자연환경과 문화 관습 교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강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가 현재 직면한 도전에 맞설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하여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활동가가 지역 자원 및 그 보호와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8년 몽비소 공원(유네스코 몽비소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기관)은 산타가타 재단,¹⁴⁾ 공공기관, 현지 비정부기구와 함께 지역의 15~18세 청년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인 유네스코 MAB 몽비소청년캠프를¹⁵⁾ 도입하여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계속 진행 중인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 공동체 발전 가속화, 그리고 청년 참여를 통해 문화 관습 전승 맥락에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¹⁶⁾ 선언과 정책 지침에 따라 몽비소청년캠프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위해 청년의 역량을 기르고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멋진 장소에서 숙박하며 현지의 문화, 자연, 공동체의 자원과 연계된 가치를 이해하고, 유엔의 2030 어젠다 ‘세계의 전환(Transforming our world)’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해와 영향을 강화하는 상호 학습활동에 참여했다.

현지 무형유산이 특별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잠재력이 드러났다. 당면한 위협과 그 결과로 인한 발전 과제를 문화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제안과 요구를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무형유산의 회복탄력성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책임 관광’(2012

<http://www.espaci-occitan.org/news/news/fai-a-ment-cultura-occitana-per-lescuole/>

14) 산타가타문화경제재단(Santagata Foundation for the Economics of Culture)은 이탈리아 투린 소재 비영리 연구재단으로 문화 자원과 사회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알린다.

(<https://www.fondazioneasantagata.it/en>).

15) 몽비소청년캠프는 몽비소 공원, 산타가타문화경제재단(이탈리아 토리노), 몽비소연대컨소시엄(Consorzio Monviso Solidale)과 아프로시마치오니(AprossimAZIONI, 이탈리아 살루초)가 아믈레토 베르토니 재단(Fondazione Amleto Bertoni), 살루초시, 케이라 문화사회체육협회(Association Culturelle Sociale et Sportive du Queyras), 브리양송 청년문화의집(프랑스)과 협력하여 탄생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쿠네오저축은행 재단과 유네스코 이탈리아 국가위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여러 시 당국과 현지 기업의 기술 협력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

16) See the dedicated webpage at: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sustainable-development>

),¹⁷⁾ 청년 참여 등의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모든 교육 활동은 세대 간 교류와 지식 전승에 찬성하는 지역 활동가와 긴밀히 연계되어 시행되었다. 전통 음식 풍습 관련 사업(제빵사, 치즈 제조사, 맥주 양조업자), 전통 농업생태 활동(양봉가, 약초 및 차 재배가), 전통 기술을 보존하는 장인(생태건축, 또는 나무 등 현지 전통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 전문가), 그리고 알프스 등산 등 기타 무형유산 및 관련 관광 활동을 증진하는 현지 문화기관이 지역 활동가에 해당한다.

캠프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캠프에서 열린 회의에 따라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청년이 매회 평균 25명 정도 참여했다. 미래 세대의 요구와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공동 제안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의사결정자와 지역 관할기관에 전달했다.

2018~2019년에 마이라 계곡과 포 계곡에서 열린 1차 및 2차 캠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양국 모두에서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한 지속적인 정보교류 활동과 더불어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역량을 회복시켰다.

또한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활동가에게 다가가 관심을 끌기 위한, 공유, 세대 간 대화와 부문별 대화, 새로운 언어와 도구(디지털 기기 등) 도입, 공동체 가치의 대안을 모색하는 역량에 대한 잠재력도 드러났다.

2020년 10월 캠프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조치로 혼합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교육 활동은 과거 참가자의 프로젝트, 그리고 과거 참가자와 미래 참가자로 구성된 청년 위원회 조직 등으로 보완되었다. 이는 훈련 활동 기간뿐 아니라 연중 내내 청년의 높은 참여도를 유지해서 다른 활동가와 이해당사자를 자극하고 청년들의 잠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미래 발전 : 반복성, 적응성, 열린 질문

유네스코 MAB 몽비소청년캠프는 국가와 세계적 수준에서 모두 극찬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2018년 11월 환경부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이탈리아 생물권보전지역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미셀바티스 상의 이탈리아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4월 더블린에서 열린 2019 유럽 MAB 네트워크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17)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2),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WTO, Madrid.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 여러 행사에서 나타난 가시성 덕분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와 지식 전승을 통한 방안에 참여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개념은 다른 많은 활동가와 공동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유네스코 등재로 혜택을 본 경우가 그러했다.

다른 활동가와 기관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청년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조직,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 자원의 가치 발굴, 전례가 없는 사회, 경제, 환경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무형유산의 활용 등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청년 캠프는 현재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과 공동체에서도 계획 중이다. 트랑쥐망스와 관련 의례로 유명한 투린 근처 피에몬테 란조 계곡,¹⁸⁾ 성지순례 전통과 관련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 크레아성산 세계유산,¹⁹⁾ 유네스코 MAB 네트워크로 “메짱기의 지식과 기술”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로 유명한 알프스 동부 트리에스테의 미라마레 해양 생물권 보전구역에서²⁰⁾ 추진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청년 단체가 설립되어 지역에서 문화 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시민 행동을 위해 목소리와 힘을 보탠다면,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관한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청년 단체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반복성 외에도 캠프의 참여 방식을 통해 원거리 지역에서 포용적 학습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지식에 접근하는 역량을 보여줬다. 또한 잠재적으로 적응성이 있어서 회복탄력성을 지닌 교육 형태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는 현시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팬데믹 시대에 더욱 특별히 중요하기에, 학교, 정규 교육 시스템, 현지 당국 전반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18) 타임2 재단(Time2 Foundation)의 후원 및 아젠다 위피(Ageenda WiFi), 카라콜(Caracol)과의 협력을 통한 ‘청년 역량(Youth Power)’ 프로젝트.

19) 문화공간(Luoghi della Cultura) 프로그램에서 ‘크레아성산에배당복원협회’가 기획하고 산파올로 사립자선재단이 후원하는 ‘자연, 문화, 생산의 크레아 성산’ 프로젝트.

20) WWF 이탈리아 본부에서 기획한 미라마레 해양생물권보전지역과 지울리 프레알프스 자연공원.

참고문헌

Atlante dei sapori delle terre del Monviso e valli occitane. A cura di Paolo Olivero.
Savigliano: Artistica, 2017

BARTALETTI F., Le Alpi. Geografia e cultura di una regione nel cuore dell'Europa,
FrancoAngeli, Milano 2011

BÄTZING W., Le Alpi. Una regione unica al centro dell'Europa, Bollati Boringhieri,
Torino 2005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Strategy for Inner Areas

<https://www.agenziacoesione.gov.it/the-territorial-cohesionagency-english-corner/>

REGIS, R. Su pianificazione, standardizzazione, polinomia: due esempi. 2012.

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forming Our World”

<https://sdgs.un.org>

UNESCO's programm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sustainable-development> UNWTO,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drid, 2012.